

박윤선

프론트엔드 개발자

생년월일: 1997.09.17

휴대전화: (+82) 010-2955-494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939번길 45

Email: pus9717@gmail.com

Tech Blog: Notion(링크)

Github: <https://github.com/YSP97>



INTRODUCE

소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윤선입니다.

대학 시절 다수의 팀 프로젝트에서 조장으로 활동하며 팀원 간의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디자이너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Figma와 같은 디자인 툴의 기초를 익히며 효과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몰입도가 강한 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연관된 지식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깊이 있게 탐구하는 습관이 제 강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소통하며, 유저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성능을 제공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PROJECT

• TAING (총 4인, 조장)

스터디 모집과 질문 게시를 위한 게시판 및 스터디원끼리의 단체채팅의 기능을 가진 플랫폼

- 구현 기능:
 1. Pocketbase의 subscribe(WebSocket)를 활용한 실시간 채팅 기능
 2. 질문 게시글 작성 및 수정, 삭제 구현
 3. kakao 지도 api를 활용한 내 근처 스터디할 곳 찾기 구현
- 기술 스택: HTML/CSS, React, Pocketbase, Zustand, Tailwind, Vite

• 작심하루 (총 4인, 조장)

티빙(TIVING) 사이트의 주요 기능과 UI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클론 코딩한 프로젝트

- 구현 기능:
 1. Swiper을 이용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구현
 2. 반응형 디자인
- 기술 스택: HTML, JavaScript, SASS, Vite

SKILL

- **Front-End** - JavaScript(high level), TypeScript(Low Level), React(Middle Level), HTML/CSS(High Level), Tailwind(Middle Level), SCSS/SASS(Middle Level)
- **Library** - Zustand, React-route-dom
- **Design** - Figma(Low Level)
- **Back-End** - Python(Middle Level) - Pandas, Numpy, Matplotlib
- **Other Skills** - Git, Github

EDUCATION

- **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2013.03 – 2016.02
졸업 자연계열
- **제주대학교** 2019.03 – 2022.02
중퇴 공과대학
 - 전자공학과
- **세종대학교** 2022.03-2025.02
편입학(졸업예정) 공과대학
 -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TRAINING COURSES

- **멋쟁이사자처럼 프로론트엔드 스쿨** 2024.04 – 2024.09
10기
 - HTML/CSS 입문, Javascript, React 심화 학습
 - 순수 Javascript만을 사용한 반응형 TVING(OTT 플랫폼) 클론 프로젝트
 - 작성하루 프로젝트: React를 사용한 스터디 모집 플랫폼 프로젝트

CERTIFICATES

- **JLPT N2** 2022

자기소개서

개발자를 지향하는 이유

저는 “내가 앞장서면, 목표는 가까워진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사 재학시절 Python을 이용한 영상데이터 처리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며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겪자, 제가 팀 리더로 나서게 되면서 생겨난 가치관입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실력을 깨닫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스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발에 관한 회고팀의 리더를 맡아 자바스크립트 스터디를 주도하였고 2번의 팀 프로젝트에서 모두 리더 역할을 맡아 반응형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팀원을 도와주거나 사용자 중심의 사용경험 향상을 위한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실행력을 통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같은 의견 공유로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개발자가 될 것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므로 프론트엔드 스쿨에서 팀원들과의 회고를 통해 모두가 실력 향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바스크립트 스터디를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며 팀원들의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하거나 매일매일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는 등 주도적 학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팀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어 공부하였고 팀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퀴즈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저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성격이 급하여 빠르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큰 목표에 따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실천하지만, 저의 욕심과 급한 성격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초기에는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팀원들에게 들은 이후 저는 저의 목표만을 고집하는 것이 팀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에 팀원들과의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팀원들과의 매일 아침 스크럼 회의를 통하여 목표를 조정해 나갔고 어려움을 겪는 팀원을 도우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동기 및 포부

학부 시절 Python을 이용한 공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자료의 조금 더 시각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 “Pydeck”이라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 본인들의 프로젝트 결과를 웹사이트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자료가 매우 초라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처음으로 프론트엔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HTML, CSS, JavaScript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며 간단한 메모장과 같은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공부하다가 좀 더 깊은 프론트엔드 지식과 React와 같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 협업이라고 느껴 멋쟁이 사자처럼 프론트엔드 스쿨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직무 파트의 동료들과의 의견 조율과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턴쉽을 통해 협업 능력을 기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